

'펍수 대뺑' 김명중 EBS 前 사장, 지스트 특별초청강연

- 5.26.(목) '위기관리와 새로운 도전' 주제로 '펍수' 성공 스토리 소개



▲ '펍수 대뺑'으로 유명한 김명중 EBS 前 사장이 26일(목) 지스트 행정동 1층 CT아트홀에서 '위기관리와 새로운 도전'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.

EBS가 개발한 펍귄 캐릭터 '펍수'의 '대뺑'으로 불리는 김명중 EBS 前 사장이 5월 26일(목) 오후 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에서 구성원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.

'펍수'는 EBS의 어린이 교양 예능프로그램 <자이언트 펍TV>의 마스코트 캐릭터로, 김 전 사장 재임 중 방영을 시작해 전례 없는 큰 인기를 얻으며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현재까지 EBS의 최고 흥행 캐릭터로 활동하고 있다.

지스트 '사회공헌 아카데미'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김 전 사장은 '위기관리와 새로운 도전'을 주제로 EBS 사장 재임 시 코로나19 등으로 맞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스토리와 캐릭터 사업 지원을 통해 EBS의 인기 아이콘인 '펍수'캐릭터를 성공시킨 과정 등을 설명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.

'펍수 대뺑'으로도 유명한 김 전 사장은 <위대한 수업, GREAT MINDS>, <자이언트 펍TV> 등 재임 당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직접 진행한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 설명하면서,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.

또한, 강연 마지막에는 핑수가 영상을 통해 깜짝 등장하여 김 전 사장 및 지스트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도 전달됐다.

지스트 김기선 총장은 "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온 김 전 사장님의 열정과 노력에 감명을 받았다"며 "앞으로도 여러 사회공헌 전문가를 초청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

한편 지스트는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△과학스쿨 △찾아가는 과학캠프 △도서 기증 △사회공헌 아카데미 강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.